

시론



이정선

前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아웃사이더(outsider)란 말은 사회적·경제적·법률적으로 일정한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자를 뜻한다. 사회학에서는 내집단, 즉 우리집단에 대한 외집단 정도의 개념이다. 내집단 구성원은 조직에 충성을 대가로 생존과 안전을 보장 받는다. 물론 외집단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 결과 외집단 사람들은 그런 주류집단의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지가 더 힘든 이유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마을과 같은 통합적 사회집단에서 아웃사이더는 조직에 충성을 다하지 않거나 내부 규율을 위반하여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사회와 문화간 교류가 활발한 이후에는 이주자처럼 외집단에서 왔지만 아직 그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였다. 최근 신노마드시대, 아웃사이더

는 유랑민처럼 떠돌다가 정착한 사회에서 그 집단에 동화는 되었으나 아직 주류집단에 끼지 못하고 비주류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처럼 혈연·학연·지연으로 뭉쳐진 내집단의 결속력이 강한 사회일수록 외집단에 배타적이고, 따라서 국외자가 주류사회로의 진입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디지털 노마드의 열린사회, 누구나 구성원간 스마트기기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고 기존에 설정된 경계가 허물어졌음에도 여전히 혈연·학연·지연에 의한 전통적 개념의 내집단이 남아있는 사회도 있다. 그런 사회에서 비주류는 여전히 주류집단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심지어 ‘팬덤’이라는 새로운 내집단까지 생겨나서, 내집단간 진영논리가 내편, 내편을 가르고 있다. 팬덤이란 관심자라는 뜻으로 특정 인물이나 분야에 열광적으로 몰입하여 빠져드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열광적인 팬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매니아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선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소위 ‘패거리’를 이루어, ‘내편’에 대해서

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없없이 관용적이지만,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내편)에 대하여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극단적인 배타성을 띠는데, 그것이 문제다. 진영논리에 따라 내편은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인식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영에 따라 상대를 무조건 적대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주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주류집단에 진입한 선구자들이 있다. 주류와 비주류,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 진영의 장벽을 허문 ‘아웃라이어’들이 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지역적 배타성과 비민주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경우이고, 후자는 소수 인종의 설움과 차별을 극복한 경우이다. 그들이 소수자들과 비주류의 롤모델이자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계층적인 차별의 장벽을 넘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지역적으로 변방 출신이 주류집단의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략한다.

우리 고향 광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보다도 민주·인권·평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한 도시이자,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소수자와 비주류조차

도 포용할 줄 아는 위대한 관용의 정신을 가진 도시이다. 광주가 위대했던 것은 시민들이 그러한 혈연·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내·외집단 가리지 않고, 계층에 상관없이 사회정의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비주류까지도 포용하며 안고 갔기 때문이다. 국외자도 주류가 되도록 기회를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흠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절차가 공정했기 때문이다.

우리 광주가 다시 한 번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내편, 내편 할 것 없이 모두를 포용했으면 좋겠다. 과거 혈연·학연·지연에 의한 편가르기, 지금의 팬덤에 의한 진영 가르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도, 비주류도, 흠수저도, 지역 색의 장벽도 모두 타파하고 그들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사이터가 될 수 있도록 더 열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첫걸음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시비비는 가리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경청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도 주류집단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희망을 주는 더 위대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홍인화의 ‘5월이야기’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 국제학박사

나이 40을 불혹이라 했다. 불혹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자의 이야기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나이대별 특징을 논했다. 15세(지학)엔 공부에 뜻을 세우고 30(이립)엔 일가견을 지니며 40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50(천명)엔 천명을 깨닫게 되고 60(이순)엔 다른 사람의 말을 편히 듣는다고 풀이했다. 올엔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과 진실도 40년이 지나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아니다,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 더 올곧게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조명돼 왔다. 정부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에서 그 같은 행보는 계속됐다. 원전 기록물들이 각계각층의 입장에서 재해석되고 작품화돼 그 역사적 의미가 가슴과 머리에 되새겨지고 있

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와 특집 시리즈물이 발굴되고 조명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전 기록물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대대적으로 후손에게도 남겨질 예정이다.

그 중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가 MBC의 ‘나는 기억한다’이다. 5·18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남긴 일기 기록과 증언을 통해 1980년 5월의 광주를 생생히 재현한 다큐멘터리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故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동영상 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가슴을 울격하게 했다. 도정 진압 작전 이후 20사단 계엄군 장교 인터뷰 영상도 공개됐다. 광주MBC는 ‘이름도 남지않았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다. 고립된 80년 광주를 돕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진실의 전파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냈다.

연중기획 ‘내 인생의 오일팔’은 5·18로 인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한 달에 두 명씩 조명했다. 1월에 광주를 위한 노래 ‘5·18’을 최초로 부른 가수 정대훈에서부터 얼마 전 9월초 최초의 대중영화 ‘꽃잎’의 감독 장선우에 이르기까지 17명을 조명했다. KBS도 나섰다. ‘광주 비

디오’가 그것이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담긴 ‘광주 비디오’는 40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전파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또 ‘다큐멘터리 3일’은 광주 518번 버스의 72시간을 다뤘다. 518번 버스는 80년 당시 군부대가 추ن했던 상무지구에서 시민군 근거지였던 금남로를 거쳐 회생자들이 잠든 5·18묘지까지 운행되는 버스다. 518번 버스에서 만난 광주 시민들이 40주년을 맞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가만히 보여줬다. 또 ‘임을 위한 노래’도 방송됐다. 40년 동안은 폐되고 왜곡된 ‘반인도적 민간인 학살’ 실태를 심층적으로 추적한 특집 프로그램이 ‘시사기획 창’을 통해 소개되어 시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KBS광주총국은 3부작 특집 ‘오일팔 인연’을 방송했다. 80년 당시 항쟁의 현장에서 도움을 준 이를 모를 ‘그 사람’을 찾아주는 다큐멘터리다. SBS의 다큐 ‘그녀의 이름은’은 5·18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을 조명했다. 당시 사진에 나오는 5·18 여성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위 대열을 이끈 여성 운동가들의 모습부터 마지막 새벽방송을 한 여성들 다양한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CBS의 ‘그해 봄’은 릴레이 인터뷰를 재구성한 7부작이다. 살아

남았다는 마음의 빛을 지닌 채 살아온 사람들의 회고를 담았다. TBS의 ‘왜 나를 찔지?’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증언과 증거, 사실에 입각해 제작된 다큐멘터리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난다. 과거는 시간의 지평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어떤 사건들은 기억되고 기술되어 역사가 된다. 이제 40년이 되었다. 40년의 역사 안에서 5·18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친다. 실제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자리 잡았다면 굳이 이런 몸부림이 필요없었을텐데. 아직도 많은 다큐가 방영되고 여전히 준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대로 안 났다는 거다. 아직도 광주시민들은 서럽다. 이 시린 가슴을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특집다큐가 멈추지 않는 이유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이 중요하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물 등 원전 자료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전시하며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아카이브를 해야 한다.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도 아카이브 작업은 이를 역사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아직 광주의 5월이 끝나지 않았기에...

기고



조우종

영암경찰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지난 6월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일명 ‘천안 캐리어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 학대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아동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누구일까? 지난해 아동 학대는 총 3만45건이 발생했고 이 중 부모에게 학대받은 건수는 2만2천700건으로 전체의 75%에 해당되며 친부모인 경우는 72%였다. 민법상 보호자인 친권을 가진 부모는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있다. 훈육을 이유로 한다는 목적에 차별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최근 자녀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

고 AI기술 등을 통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을 점검해 아동이 행락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도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미취학 아동 대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학대 고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권한이 확대되고 현장 조사 불응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학대 현장의 장소에서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재학대 위

험이 높은 경우에도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 조치 요건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기간이 최대 4년에서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로 연장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선 모두의 용기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하다. 아이들의 소중한 웃음을 지켜내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몫이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說

코로나 ‘파견 의료진’ 원룸 전전해서야 되겠는가

광주지역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멀리서 달려온 파견 의료진이 밤낮없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파견 의료진이 지정된 숙소가 없어 모텔이나 원룸으로 내쫓긴다고 하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대접이 이토록 허술해서야 되겠나. 자신의 건강 위험을 무릎 쓰고 타 지역까지 왔는데, 이런 도리가 아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모집된 광주 파견 인력은 총 27명(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으로 지역 대학 주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광주시는 이들이 진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식사와 숙박업소 등을 리스트화해 안내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숙박업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숙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쓸쓸하기 그지없다. 경남 창원에서 파견된 한 간호사는 “숙소를 예약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치료 간호사라는 이유

로 거절당했다. 파견자들이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취급을 받아야하나”면서 “대학가 원룸 월세도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측에선 “당초 파견 의료진들에게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숙소를 마련해줬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동이 부족해지자 의료진이 묵는 숙소를 환자에게 내어 드렸다. 대신 시가 지정한 지역 우수 숙박업소인 크린 숙박업소 86개와 크린 호텔 26개소를 지정해 안내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파견인력 개개인이 어느 숙소에 묵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원룸 등에서 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숙박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녹초가 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료인이 섰나 설 수 있겠는가. 코로나 극복 영웅 또는 천사들이라고 미화할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코로나 시국,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참석 자제를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보수단체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엄중한 시기에 이런 집회가 가져올 예기치 않은 결과가 우려된다.

정부는 내달 3일 신고된 도심 집회 80여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서울 도심 집회 참석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엇그제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만큼 불법 집회 및 타 지역 방문의 자제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지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광주에서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전세업계도 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전세업계는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도심 집회 운영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업계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이 쉽지 않았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민족대이동을 멈추자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의 불씨를 막기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례야 꺾여 확진자가 한자리수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가 2주 넘게 시행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업계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제 막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정상적인 생활을 다소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추석 전후, 보수단체 집회를 계기로 n차 감염이 확산된다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분간 ‘이동 멈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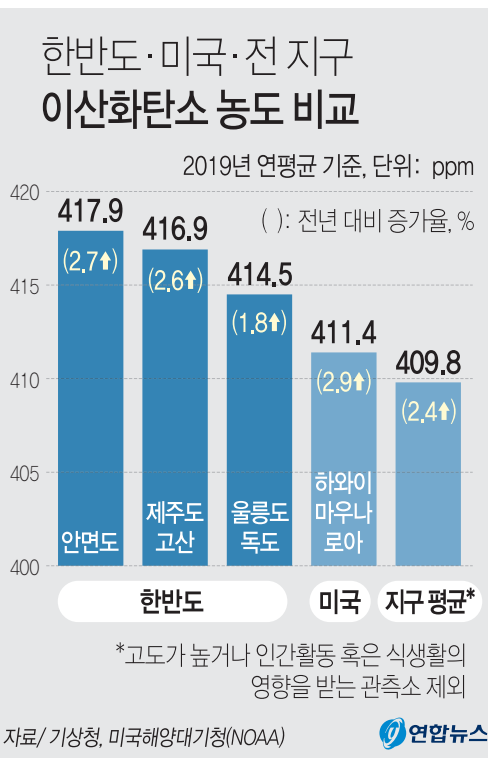
“작년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미국해양대기청(NOAA)에서 발표한 전 지구 평균농도(409.8ppm)보다 높았고, 가파른 상승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온실가스 분석 결과 등을 담은 ‘2019 지구대기감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에서 관측한 2019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7.9ppm으로, 전년(415.2ppm) 대비 2.7ppm이 증가했다. 안면도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기후변화 감시소다. 지난 10년간(2009~2018년)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연간 2.4ppm)은 전 지구 평균 증가율(연간 2.3ppm)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평균을 웃돌며 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현상이 지난해 두드러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양과 토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안면도와 제주도 고산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값은 관측 이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각각 39㎍/㎥(최근 10년 대비 +8.3%), 35㎍/㎥(최근 8년 대비 +16.7%)으로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강하게 불던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2019년에는 다소 약화했고, 관측지점의 연무(대기의 혼탁) 현상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朴俊洙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李庚秀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FAX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650-2010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650-207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